



개혁주의 영성이해를 위한 소고:

총체적 영성을 위하여

이광희*

I. 서론

기성교회 밖에서 소규모로 또는 기도원 등에서 평신도들 가운데 은밀하게 이루어져 오던 기독교의 영성에 관한 전통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기성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 영성 문제를 목회와 연결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심은 교회성장이라는 관점과 연결되어서 더욱 분명하다.

한국교회성장에 있어서 1970년대의 대규모 전도집회와 기도운동은 전통적인 농어촌 중심의 사회로부터 도시화를 통한 새로운 변화를 갈구하는 청년층과 학생들에게 호소되었고, 기독교의 대형화 운동은 산업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개혁을 추구하던 시대정신과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형태의 기도운동은 전통적인 한국인의 종교적인 영성과 기독교가 혼동되어진 것으로 비록 그 외형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종교적인 본질상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반성을 요한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웠다.

* 평택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실천신학)

이때에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소그룹 형태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성장 운동이 198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경공부 중심의 새로운 운동은 기독교의 지나친 세속주의화와 저급화를 우려하던 지식인 계층과 중산층에 호소하여 교회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 대한 올바른 상황화를 이루기보다는 지식중심의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교회성장의 물결을 타고 양산된 신학생들의 대량배출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몇몇 대형교회와 대다수의 소형 개척교회라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회성장의 불균형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교회성장의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성장과는 뭔가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교회성장 방식을 찾게 되었는데 여기에 호응된 것이 바로 영성 문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가장 큰 영성 운동의 특징은 반지성주의라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하나님 말씀 강해를 통해 냉냉해진 가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적 현상을 통한 체험과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 등으로 나타나는 영성 운동을 통해 교회의 침체현상을 탈피하고자 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성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교회성장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발견케 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로부터 신본주의로 그 축을 옮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관심을 끈 영성 운동의 방향이 1980년대의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서 나타나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어진다는 점에서 영성에 대한 재발견이 또 다른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화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영성에 대한 시기별 고찰을 통해 총체적영성을 위한 실제의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기독교 영성이란?

1. 영성의 일반적 이해가 갖는 의미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은 ‘물욕을 가진 것’, ‘세속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정신적인 것’, ‘높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것 보다 정신적이고 높고 깨끗한 것이 더욱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영성 이해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 판단에 가장 이상적인 정신이나 가치를 자기의 영성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간다. 이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영성 이해에서 중요한 점은 신령한 것 즉 영성이 우리의 환경 즉 현

실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영성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이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만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실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를 이끌어 가는 실체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임을 기억해야 한다.¹⁾ 즉 영성과 현실의 관계는 영성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요,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비 기독교적인 다양한 종류의 영성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한다²⁾ 할 지라도 이와 같은 영성 이해는 현실보다 영성이 더욱 중요하며 오늘의 현실은 바로 우

1) 성경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전 12:1). 마태복음 26장 41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연약하여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분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급한 육체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고된 영혼만큼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자기정당화를 이룰 수 없음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 이해하기보다는 높은 가치 즉 아버지의 영은 간절히 원하지만 저급하고 육적인 가치 즉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나를 사로잡은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그 순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은 말하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요, 열매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인 것이다.

2) 영성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전매특허를 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뿐 아니라 스토아주의 영성, 불교 영성, 도교 영성, 실존주의 영성, 해방신학의 영성, 심지어는 노동자 영성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40.

리의 영성에 대한 현 주소로서의 증거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기독교 영성의 특징

기독교 영성은 기독교의 가치나 정신을 나의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독교 정신의 기초를 이루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지칭한다. 오성춘³⁾이 올바르게 지적한 것 같이,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격의 정신과 사상과 삶을 본 받으려는 인본주의 영성인 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 영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관계성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영성 이해에서 영성은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 가는 모

3) 오성춘,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47이하를 참조하시오.

델이지만, 기독교 영성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닮아가려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예수와 같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순종의 도구로 바치신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기 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바울과 같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하심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뜻이다. 즉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닮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안에서(in Christ)라는 말로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성은 엄격한 자기훈련과 수양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4)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 하시기 위해 물위를 걸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물위를 걸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당신의 종을 물위로 걸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앙고백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된 소위 영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를 극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본질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⁵⁾ 복음주의 개혁신학자인 J. Calvin은 로마서 1장과 2장의 주석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찾을 수 없음을 올바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속해있는 인간에게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분 안에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

5)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방법의 주장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견해가 있다. 그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전적인 부패를 부정하고 인간 안에 선하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영성 이해의 주도권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둔다. 둘째로 인간의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협력하여 참된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대표적이다. 셋째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 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복음주의적인 견해가 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Van Til 교수는 목공소에서 튜질을 하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장난꾸러기 아들이 놀다가 나무를 그만 빼놓아지게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나무가 그릇되게 놓인 것을 모르고 튜질을 계속하는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타락된 현실을 설명한다. 톱은 계속해서 나무를 썰 수 있지만 불행히도 나무는 비뚤어지게 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인간의 이성 및 모든 삶의 자율성은 시행되지만 사실상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무를 자르지 못하는 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자름을 위해서는 먼저 비뚤어진 나무를 바로 놓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켜 Van Til은 중생한 의식으로의 변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여 올바로 반응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그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점에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은 깊이 새겨 둘 일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화하는 행동은 참된 기독교 영성이라 볼 수 없다.⁶⁾ 호세아는 12장 2절 이하에서 기반적이고 잔피가 가득하며 하나님과 쟁변하는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백성들을 꾸짖기 위해 하나님께서 과거 패역했던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 했던 행위를 벌주시며 보응하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환도 뼈를 위골케 하심으로 심판하셨고 은혜로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으니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을 찾아와서 문둥병

6)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의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이 매우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다. 결국 영성은 소극적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자신을 비우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 흔히 이해 되는대로, 천국의 비유를 이끄는 주체가 탕자 자신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아들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 역시 삭개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주도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갖는 것이다.

이 치유된 10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모두가 치명적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였고 불행 중 다행으로 능력의 주님을 만나서 모두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주님을 떠나갔지만 사마리아인 문둥이 한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그 발아래 엎드려 사례하자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셨다. 문둥병이 낫는 일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 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이 바로 구원이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동맹적 계약관계(contract)가 아니라 능력 있는 분에 의해 무능한 자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수혜하는 언약관계(covenant)임을 말한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음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심 많고 좌절하는 자 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분을 의지하고 그 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은 반드시 변화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기독교 영성의 목적은 어떤 황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을 위해 오래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드러나고 실행되어지는 도구로 기도자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같이 변화 산에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영성의 궁극은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3.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은 근본적으로 한 뿌리이면서도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이 두 가지 개념의 혼돈을 지적하고 보다 균형 있는 구별을 찾아보자. 본래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나오는 말씀의 주동사인 ‘제자를 삼아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명령은 ① 나가면서 ② 세례를 주면서 ③ 가르치면서라는 진행형동사를 동반하고 있다.⁷⁾

7) 교회성장학파의 사람들은 여기서 ‘세례를 주며’라는 말을 교회밖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 만드는 행위(제자화)로 보고 ‘가르치면서’라는 말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를 교회의 책임 있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완전화)으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제자를 삼는 일은 ‘제자화’와 ‘완전화’를 모두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들의 관심은 제자화를 통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런 점에서 교회성장운동의 한 기술로서 제자화는 기성신자를 성경공부를 통해서 양육한다는 개념보다는 다분히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적인 의미가 강하다. 물론 선교단체의 활동을 단순히 교회성장학파의 영향하에 있는 어떤 활동으로 제한 하기는 어렵지만 선교단체의 시동 자체가 기성교회의 전도에 대한 강조의 부족에 대한 반발로 교회 밖(para-church: 또는 교회와 더불어 라고 번역할 수 있다)운동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볼 때에 선교단체의 활동과 전도를 먼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성경공부를 시켜 양육하는 교육목회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선교단체(para-church)에서 주로 시행하던 것이다.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성경을 배우므로 기성교회와 더불어 갈등을 빚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성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이들 선교단체의 방식을 빌어서 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행함으로 교회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이와 같은 연유로 해서 다른 많은 교회들도 제자훈련을 교육목회의 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정착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선교단체는 본래의 목적이 양육이 아니라 봉사라는 점에서 목적 지향적 단체(task oriented structure)이며 Sodality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어떤 책임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그 단체의 목적과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단체의 회원으로 남을 수 없다. 따라서 선교단체는 그 단체의 설립 목적이 분명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단체 교육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불신자를 전도하여 개종시키는 것이다. 이와 반면에 신자의 양육은 교회의 몫이다. 물론 교회도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그 구조가 Modality적인 것으로 어떤 조건이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조직이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

는 자는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다. 교회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양육되는 개인훈련의 과정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이다.

영성 훈련은 '타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이전에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즉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먼저 제자로 살게 만드는 과정이 영성 훈련이라는 점에서 제자훈련과 구별된다. 영성 훈련은 넓은 의미의 제자를 삼는 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개개인의 적당한 소명을 발견케 하고 나의 은사에 맞게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전문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토록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양육된 사람 중 어떤 공동 목적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선교단체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어떤 목적을 위한 훈련개념으로서 선교단체가 영성 훈련을 통해 교인을 양육하는 일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교회는 신자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되 동시에 제자 삼도록 하는 선교단체의 기능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되며, 각각의 기능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단체는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전문성이 특징이 되어 좀 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제자훈련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자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사람이 제자가 되기(영성 훈련)보다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받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III. 영성 생활의 실제 문제

1. 일반적인 두가지 선입견의 문제

Urban T. Holmes 3세는 그의 책 *목회와 영성*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영성이라는 개념의 혼돈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영성의 이해는 ‘영성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예를 들면, 성경공부, 기도모임, 예배, 전도, 봉사 등-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즉 방언을 말하는 등의 반 지식적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과 교회의 사회적 행동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동참하기보다는 영적인 영역을 분리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도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성 이해는 영성을 교회생활의 여러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영적인 것의 가치로서 기도를 통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소위 영과

8) Urban T. Holmes,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역, 「복회와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5이하를 참조하십시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들은 새벽기도 참석, 철야 및 금식을 강조하며, 성경다독 등을 통해서 영성생활의 만족을 얻는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영성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생활 자체가 모두 영성이다’는 견해로서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것인데 마치 어느 부분만이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크리스찬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되 성령의 열매로서 일상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생활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자들은 때때로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의 계시 이해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규범적이고 행동적인 실천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강조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등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등한히 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영성 이해의 일반적인 두 가지 특성은 사실상 ‘이것 또는 저것(either or)’이라는 관점에서 양극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흔히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교단에서는 초월적인 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였고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웃과의 일상적인 삶을 강조한 반면에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등한히 해 온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오성춘⁹⁾이 올바르게 지적한

9)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9), 25이하

것과 같이 개인구원을 강조하는 영성 이해는 죄에서 용서받고 중생한 체험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일이 부족하며, 반면에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영성 이해는 오직 인본주의적 이론만 주입시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양 극적인 주장이 하나가 되는 영성 이해의 바람직한 방향은 ‘이것과 동시에 저것(both and)’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독교 영성은 교회생활 가운데 또는 신학의 한 분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분명하고 특별한 자리가 있으며 동시에 교회생활과 신학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일반적인 것으로서의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독교 영성이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인 삶이 단 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삶으로 메말라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2. 영성 생활의 실제 중심이 되는 곳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특별한 영적 체험(중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끄는 마음을 중심 처로 해서 내면세계의 질서로 나타난다.¹⁰⁾ 즉 영성 생활은 내면세계의 질서가 일상

를 참조하시오.

10) 미국 Westminster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Van Til은 사람의 의식 즉

적인 삶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의 주되심(Lordship)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관계를 말한다(계 3:20).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나의 제자가 되리라(요 6:47-58, 63-70)”는 말씀에 많은 사람이 떠났고 오직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심령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11) 기독교 영성의 실체는 이와 같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것이지만 이와 같은 관계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삼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① 아담의 의식(타락 전): 수용적 재구성적(receptively reconstructive)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아들이고 이미 명령되어진 것을 다시 이복하는 제한된 한계 속에서의 자율성을 갖는다.

② 타락된 사람의 의식: 스스로 창조적 구성적(creatively constructive)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자율성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경건이 있을 수 없다.

③ 중생된 자의 의식: 원리적으로는 첫 사람 아담의 의식으로 동일하게 회복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실제적으로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마치 M. Luther의 고백과 같이 의인되었으나 죄인이요, 죄인이냐 의인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상태이다.

11)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한 자매가 사는 마을에 그 나라의 여왕이 찾아오셨을 때,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찾아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고 한다. 그때 그녀는 “그야 물론 여왕님이시죠”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자들은 자매가 평소 예수님을 사랑하던 것을 비난하며 “당신도 별 수 없이 예수님보다 여왕님을 더욱 사랑하는군요”라고 빈정대었다. 그때 자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때에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인 것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특별한 것이며 동시에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이끌어 가는 중심처(headquarter)로서 ‘실제적’인 것이다. 기독교 영성의 실체를 위해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¹²⁾ 축복을 강조하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희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 또는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교회가 성장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탱하고 서있던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¹³⁾을 할 때가 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적 관계가 아닌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과 혼동한데서 오는 문제인 것이다.

신앙생활의 허전한 구석을 메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에 활동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어서, 잘 풀릴 때는

12) 입시를 앞에 두고 행해지는 40일 작정 특별새벽기도회, 101일 성경일독운동, 신년 특별 축복 대 성회 등 이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에 힘들여 참여할 때에는 영성이 충만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허전하게(흔히 킁킁하다고 느끼는 것)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증상은 중독환자의 금단 현상 같은 것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중독이 아니라 자유한 것이다. 참된 영성은 구속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이다.

13) Gordon MacDonald,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서울: 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17. 고든 맥도날드는 이것을 “The Sinkhole Syndrome”이라고 표현한다.

종지만 안 풀릴 때는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우리와 주님과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주님과과의 특별한 관계가 신자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요청되어지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어지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¹⁴⁾ 즉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교육이다. 주님과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던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증거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나 프로그램을 말씀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그것이 신자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교육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주님과과의 영적이고 신비한 관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영성의 실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

14)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 주부의 절제되어진 식단이 필요함. 같이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한 삶을 위해서는 주님과과의 특별한 관계가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어떤 면에서 주부의 일상적인 식단과는 구별되는 외식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외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주부의 식단보다 외식을 더욱 좋아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약함과 풍성한 삶을 위해 때때로 외식이 필요하기는 하나 외식이 주부의 식단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나치게 외식을 즐기는 일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마약과 같이 습관이 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의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관계가 일상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특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주님과의 영적 관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 매여서 타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는 점이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활동과 프로그램은 우리와 주님의 신비스럽고 영적인 관계를 증거 하는 외적인 간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어떤 경우 특별한 활동은 외식과도 같아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도전과 자극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특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결코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비스러운 관계성 속에서 그 중심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lordship)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기독교 영성의 실체를 찾아야 한다.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다. 그러나 구별이 필요하다.

3. 기독교 영성 생활을 진단하는 몇 가지 요소들

Gordon MacDonald에 따르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인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면세계의 질서라고 하며 이와 같은 것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핀다. 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영성 생활을 진단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위에서 살핀 것과 연결 지어서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동기 부여를 통해서 살펴보는 일: 우리가 행하는 일의 배후에 있는 힘의 근원을 살펴봄으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살핌으로 그 현실을 이끌어 가는 실체인 영성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1) 쫓기는 사람(driven people): ‘쫓기는(driven)’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비인격적으로 취급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 영성의 주체가 나를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상태¹⁵⁾로 놓기보다는 피동적인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성경은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죄의 영향하에 있는 인간의 아버지로서 인간을 지배하되 본래의 상태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파괴함을 보여준다. 죄의 영향하에 인간은 아버지와의 순종의 관계에서 떠나고자 하여 스스로를 자율적 존재로 착각하며(탕자의 비유를 볼 것),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보다는 세상의 아버지인 죄의 종노릇함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쫓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영성의 주체

15) 여기서의 자율적이란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올바른 상황의 것이 되어서 나의 결정의 결과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Van Til의 주장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율성은 전적으로 손상된 것이어서 스스로는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나 사실상은 죄의 영향하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까지는 참으로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죄의 영향하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율적이기보다는 지배되고(driven) 있다.

가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요 사탄의 영향으로 변질되어진 인간의 거짓된 자율성이다.¹⁶⁾

주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 것이 실제로 삶의 현장과 맞물려 있는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self-control)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정하여 통제시키지 않으실 때 로마서 1장의 지적처럼 우리의 마음은 순리적이지만 못하고 역리적인 것 즉 쫓겨다니는 자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목회(ministry)도 목회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운 목회 방침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¹⁷⁾

13)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증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잘못을 자주 보게 된다. 본래 간증이란 목격한 것(witness)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증이란 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어떤 사실 즉 누군가가 행한 일을 목격한 자로서 제 3자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 즉 하나님께서 일하신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의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야만 간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 참된 질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즉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자기 자신이 통제될 때(self-control) 비로소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된다.

17)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회개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과거에 어느 여자에게 몹쓸 죄를 지은 한 남자가 후에 예수를 믿고 그 일을 회개하게 되었는데 참된 회개는 행함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말에 과거에 지은 죄를 그녀를 찾아서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죄의 값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녀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방향은 진실하지만 그녀를 찾아서 보상하고자 하는 동기가 '나의 양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양심'을 위한 것

우상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 나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마음의 왕좌에 놓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조종 줄¹⁸⁾ 너머에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삶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은 아래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진단 할 수 있다.

① Inferiority Complex(열등감)에 사로잡힘: 열등감의 뿌리는 불안인데 이와 같은 불안은 죄에서 기인한다. 죄의 언어적인 기원을 살펴보면 ‘그릇 맞추다’로서 화살이 본래 맞추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것이 죄’인 것이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은 존재 적으로 불안을 수반하니 최초의 죄 된 존재인 마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 되게 놓으려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사탄은 자신의 파멸과 더불어 인간의 시조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말을 좇게 함으로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인간은 죄를 지은 뒤에 불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낮을 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열등감을 소유했던 사탄의 특징은 ‘Complex로 모든

인가에 따라서 회개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점이다.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다.

18) 꼭두각시 인형을 커튼 뒤의 어떤 손이 조종하되 무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형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한다.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열등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있지 못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자신과 더불어 공존하는 이웃의 위치를 존중하지 못하고 파괴함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즉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에 지독한 가난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아이가 때때로 지나치게 부유함에 집착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열등감으로 기인함을 주의해야 한다. 때로 Complex는 어떤 원동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상으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의 결과가 비록 긍정적인 것일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그 일은 자신의 내면적인 열등감으로 기인한 이기적인 산물일 수 있다. 열등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질병이요 동시에 죄이다. 열등감을 극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들도 있지만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위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기인한 열등감은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② 표상에 집착함: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되 그 결과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명함이나 책상 위의 직책표시 또는 벽에 걸린 액자 속의 내용 등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한다. 교계나 교회 안에서의 자리에 연연하며 특히 자신의 약점을 보상할 직분(당회장, 목사, 교수, 박사

등)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

③ 절제되지 않는 팽창력: 믿음은 우리를 ‘시작은 미약하나 심히 창대 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람을 불려서 열 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겨자씨 만한 것이 큰 나무를 이루어 새들이 깃 들게도 만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약속이라면 팽창은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원리이다.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구리의 배불리는 모습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끌기까지 절제되어지지 않는다. 쫓기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요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절제되지 않는 팽창력으로 나타난다.

④ 일을 이루기 위해 원리를 포기하는 것: 윤리적 타락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실 속에서 목적을 이루려한다. 일과 원리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서 일은 원리를 세우고 원리는 일을 통하여 나타나야 마땅하지만 쫓기는 자에게 있어서 원리는 무의미하다. 오직 일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도구로 사용되며 실용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실용을 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함으로 일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시한다. 이와 같은 일은 목회 현장에도 심각한데 교회 개척 시에 개인의 자본을 들여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개개인이 개척하는 조그만 교회 사이에 대형교회가

큰 자본을 들여서 부교역자를 파송하는 지 교회를 세우므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영혼을 얻기에 적합한 곳(윤리적)보다는 사람을 많이 교회에 모을 수 있는 곳(실용적)이 교회 개척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지는 일 등은 비난되어 질 대표적인 사례이다.

⑤ 늘 이웃과 경쟁의식을 갖는 것: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지체라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봄으로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각 각의 삶을 추구한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 주위에 자주 쓰이는 단어인 '세계화'라는 말은 세계를 경쟁 상대로 삼아서 살아남기 위한 약육강식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공동체를 이룰까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는 경쟁의 개념을 넘어서 상호인정과 상호계발의 의미를 갖는다.

⑥ 내면에 격렬한 분노가 있는 것: 때때로 견잡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는데 대개의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왜 내가 이만 밖에 못한가'하고 기준을 완벽에 두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과 왜 나와 같이 하지 못할까하고 자기와는 다른 이웃에 대한 이해심의 결여로 말미암는 분노감을 마음에 품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성을 정직하게 살피는 훈련의 부족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대 망상적일 수 있고 또 때로는 타인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⑦ 비정상적으로 바쁘면서도 사람이나 일을 줄이면 허전한 것: '바쁘다'를 연발하며 살아오던 사람 속에 숨겨진 영성의 동

인이 세속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바쁜 일의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되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바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에 쫓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called people=mission): ‘부름에 순종’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와 같은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분에게 순종할 때에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죄의 영향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리는 참된 자유를 잃었으니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목적에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이며 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이다. 1계명에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분과의 관계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을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한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된다.¹⁹⁾ 하나님이 주인

19) 김동호 목사는 고백하기를 나의 이성과 상식은 매순간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속삭이며 꼭 예수를 믿어야 만 구

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주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이끌었던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 표상을 쫓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요 우상의 특징은 인격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울에 비추어서 스스로 확인하는 독백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못하고 우상적인 섬김으로 말미암는 독백인 경우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뚜렷한 목적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서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조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Called people(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부르심이 있어야 해야 할 일의 방향도 있게 된다. 따라서 부르심이 없이는 소명(mission)도 없다. Called people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통해서 점검될 수 있다.

①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

원에 이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외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생명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구원이 있음을 고백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성을 삶의 출발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참된 진리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다.

이 살아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수용적이고 재 구성적인 의식(Van Til에 따르면 아담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 41장 8-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사람 한사람을 지목하여 불러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았음을 말씀하신다.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의식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예수님과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아니라 …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 1:19-27).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은사와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사탄의 전형적인 수단인 열등감으로 말미암는 온갖 폐단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으며, 내가 가진 한계를 감당할 때 오는 참된 성취감을 맛보도록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주위 환경과 사람들과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속게 되는 일이 많다. 현재의 내 모습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항상 불평과 원망 그리고 좌절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는 그 죄인 되고 벌레와 같은 모습에 비해 현재의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나를 내 나름대로의 거울에 비추어 본 사람은 원망 가운데 불공평함을 호소할 것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저서”(행 9:18) 참 경건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

신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불공평’인지를 고백하게 된다.

㉠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요동치 않는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 3:29). 내가 신랑이 되려고 하다 보면 불평과 욕심이 생긴다. Van Engen은 오늘날 교회성장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기보다 나의 제자로 삼거나 우리교회의 교인으로 만드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왜 교회를 성장 시켜야 할까?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오늘날 기독교 영성을 올바르게 이해한 교회성장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결과에 대한 순복이 있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결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은 ‘누가’ 흥하여야 할까? 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모호하고 분명치 않을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목회인가? 누가 흥하여야 하고 누가 쇠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주인과 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들어야만 소명을 알게 된다. 듣지 못하면 할 일을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른 채 일을 하면 허공을 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부름은 곧 소명 (Calling= Mission)’이다. 부름이 없으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욕

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여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바울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심 같이 아라비아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즉 우리의 본성을 따라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일’이다.²⁰⁾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번에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가 다 포함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 애급한 이스라엘의 뒤를 애굽군대가 쫓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길을 막고 있을 때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좋은 예가 된다.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본성을 좇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대들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친다.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울 가진 자이다. “가만히 서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다.

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2)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하는가: 시간은 곧 삶이요 생명이다. 이와 같은 시간 사용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고 가족과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대개 우리 영성이 균형을 잃은 경우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시간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어진다.

㉠ 나의 약점을 따라서 보내지게 되어 진다. 쓸데없이 보내지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의 약점을 나타낸다.

㉡ 내 주변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의해 좌우되어 많은 경우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낭비하게 된다.

㉢ 중요한 일보다는 가치 없어도 긴급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

㉣ 올바른 일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대중의 갈채 받는 일을 위해 투자되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윤리성 문제가 나타난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시간의 주인은 주님(the Lord)이다. 그러므로 그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인 시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실행하게 된다. 시간의 제한성을 알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본분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의 리듬에 나를 맞추어서, 시간 사용의 올바른 기준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 시간예산을 세우고 시간을 통제하며 시간의 계획표(time table)를 가지고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3) 지적인 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 어떤가? 즉 독서하는 것, 공부하는 내용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영성을 진단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것인가는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된다. 과연 창조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참된 기독교 영성이 드러난다. Gordon MacDonald는 많은 사람이 인생을 기독교 영성적인 지적계발 없이 단순한 오락적(amusement) 삶을 산다고 비판한다. 내면세계의 지적 차원을 계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져야 한다.

① 지성은 기독교적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많은 종류의 책을 읽으므로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것 뿐 아니라 주변적인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²¹⁾

②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께서 피조계 안에 기록해 놓으신 때

21)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용서와 심판은 사람의 권리가 아님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권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용서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집권자를 통해서 죄인을 심판하시거나 때로는 그를 심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는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심판주가 하나님임임을 알고 심판을 텅하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아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나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옳다.(갈라디아 6:1)

시지를 관찰하고 묵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지성이기 때문이다.

③ 기독교 지성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정보와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기독교 지성과 영성은 많은 경우에 서로 갈 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식되나 사실상 지식과 영성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 없이 참된 영성에 이를 수 없고 영성 없는 지식은 무익하다.

④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함으로써 올바른 기독교 영성에 이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주 질문하고 나의 견해를 비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참된 기독교 영성에 이르게 된다.

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성장한다. 훈련된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기 위해 두 가지 학습방법을 가져야 한다. 첫째는 방어적인 공부인데 이것은 타인의 주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학습이다. 예를 들면, 과제물을 쓰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매 순간 주어지는 계획되지 않은 학습의 방법을 말한다. 또한 공격적인 학습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훗날을 위해 하는 예비적인 공부이다. 즉 본인의 영성 계발을 위하여 계획되어진 넓은 범위의 학습을 말한다. 참된 의미의 기독교 지성을 위해서는 방어적인 학습뿐 아니라 공격적인 학습이 있어야 한다.

4) 영적인 힘이 있는가?: 내면세계의 질서를 점검하는 가장 절정은 영적인 영역 즉 마음의 중심부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은밀한 시간이 있는가'하는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가치와 판단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도 나를 모두 드리는(All to Jesus I Surrender)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기도가 과연 기독교 영성적인가 하는 점은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단 할 수 있다.

① 묵상: 지금까지 내가 주장하고 행하여 오던 모든 일을 멈추는 일 즉 외부적인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일이다.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자신 안에 있는 의도(intention) 자체도 멈추는 일이다. (참조: 출 14:13 “가만히 서서”)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불행히도 마음의 중심부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은밀한 시간’이 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놓는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영적인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바로 한국 교회의 기도 실패 원인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지적처럼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당연히 여긴다.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본래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 똑같은 내용을 고집스럽게 반복하는 것을 ‘간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²²⁾ 물론 우리가 연약하

22) 흔히 한 불행한 과부의 간구를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들었

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간구 했다가도 또다시 낙심되고 의심하였다가 다시 기도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언부언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은밀한 기도가 되기 위해 첫째로 중요한 점점은 ‘묵상’이라는 침묵과 고독의 순간을 갖는 것이다. 사실상 묵상이란 ‘내 주장을 멈추는 일’이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즉 불신앙을 벗어나는 일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선인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자했던 우리의 기도자세를 멈추는 일이다. 고요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은밀한 화원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창조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데서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된다.

② 기도: N. V. Peale은 기도를 설명하면서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보라는 말로 Vision을 설명했다. 그는 질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 속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백혈구의 모습을 그려보고, 교회당 건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언덕 위의 하얀 예배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때

던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낙망치 말고 지속되어야 할 것을 말할 많이 함과 연결시킴은 잘못이다. 불행한 과부의 간구가 울지 못한 것이라도 억지로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원한을 푸는 것 즉 마땅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간구가 불의한 것에 의해 잠시 막혔다가 마침내 해결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꿈이 현실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기독교 영성과는 거리가 있다. 본래 Vision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마치 문지기가 자격이 있는 사람(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문 밖의 노크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²³⁾

③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 하나님께 귀기울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듣고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아뢰는 일이 바로 기도의 절정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내가 동참해야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찾는 구체적인 결단이다. 기도는 일단 많이 해놓은 뒤에 살아가

23) 합심기도란 한가지 목적을 놓고 여러 사람이 연합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들으시도록 만드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합심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하여 발견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적인 기도는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해야 하는 책임을 준다. 그리고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연합하여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합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적인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좀더 강력하게 전달하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분별하는 의미가 있다. 합심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성숙한 형제와 아직은 미숙하여 자신의 생각에 기우는 형제 사이에 지도함과 증보의 유익을 얻게 된다.

면서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지이다”라고 아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맡기고 부담을 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저희들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협력 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라고 간구하고 이와 같은 간구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과 책임 없이 “아멘”이라고 화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도의 자세는 참된 기독교 영성을 이루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이면서도 서로 살피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서로 돌아보아서 연합함을 채우는 것임을 발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각자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은밀한 영적 화원에서 만나 교통하는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매일 매일 Q.T.(묵상의 시간)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24) 혹자는 Q.T.를 강조하며 쓰여져 있는 성경말씀(logos)에만 매달리는 것은 죽은 말씀이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 하는 말씀

5) 안식과 평화가 있는가?: 한국교회는 휴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다. 대부분의 경우에 휴식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죄의식까지 갖는다. 사실상 이와 같은 지적은 대부분의 우리가 갖는 휴식이 세속적이라는 점에서 지지되어 질만하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휴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볼링을 하거나 사우나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나 기독교 영성을 위한 휴식은 어떤 종류의 휴식을 갖느냐가 아니라 과연 안식과 평화가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휴식은 안식일적 의미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휴식은 기독교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한다. 휴식은 사실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식일적 휴식이란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과정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 하는 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적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주일 후 다음날인 월요일은 더 더욱이 피곤한 날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주일성수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도록 지켜지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님

(rema)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진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살아 역사 하는 말씀은 따로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본래 쓰여진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 하는 말씀이다. Logos와 Rema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럼으로 Q.T.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성경말씀인 Logos외에 또다시 주어지는 새로운 계시로서의 말씀인 Rema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목상을 통해서 우리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울 들어야 할 것이다.

은 당신의 전 생애 목회 기간을 통해서 단 한번도 휴가를 가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주의 일을 위하여 쉴 틈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인들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기독교인이 세상과 더불어 교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일은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세상사람들에 비해 교인으로서의 삶을 하나 더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의 삶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중적인 삶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된 안식일적 삶은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기록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겔 20:20).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주일을 성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고 확인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인된 삶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일 성수는 안식일적의미로 이루어져야지 율법적이고 강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²⁵⁾ 휴식이 없이는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

25) 흔히 이와 같이 주일성수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분 가운데 잘못된

는데 본래 불안(restless)이라는 말은 휴식(rest) + 없음(less)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영성의 휴식은 계획되어져야 한다. 안식일적 의미의 휴식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까?

① 모든 사역들에 대한 돌아봄(과거):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살펴보면서 '나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였는가? 이 일은 얼마나 잘 되었는가? 나는 왜 일을 했는가? 나는 어떤 결과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등등을 질문해 본다.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적 휴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이 누구에게 바쳐져야 바람직한지를 확

의미의 '남은 자'사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나만 남았다는 주님에 대한 지나친 충성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정죄할 뿐 아니라 자신의 눈에 비친 다른 연약한 자같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더 더욱 철저히 복종시키는 가운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잘못된 남은 자 사상이 위험함을 경고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이 다 베어져도 끝까지 남겨두시는 신령한 그루터기가 있으니 이는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일 뿐이다. 이와 같은 나 중심의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적인 휴식이다. 소위 잘못된 '남은 자'사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휴식하지 않고 충성만 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를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나만 남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교만하며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 '남은 자 신학'의 핵심은 소수 정예 과를 만들기 위해 좁은 길을 가는 신학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그 핵심이 '어려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 길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님이 은혜로 발견하게 해주시는 길이다. 좁은 길은 내가 고난을 감당하면서 영웅같이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실하게 알게 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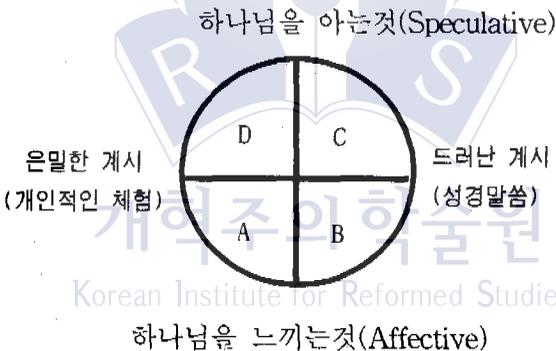
② 삶의 근거가 되는 진리와 헌신을 정리함(현재): 한경직 목사는 태양이 쨍쨍 내리 쪼는 날 한참을 대양을 바라보고 사방을 둘러보니 온통 세상이 컴컴하고 아무 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고백하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간데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주님께 대한 참된 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식일적 휴식은 중요하다. 휴식할 틈이 없이 일하는 충성은 자랑할 필요가 없다.

③ 우리 사명을 분명하게 의식(미래):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끝까지 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남겨두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갖는 목적은 ‘성도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동맹신학(contract: federal theology)과 구별되어진다. 동맹신학은 조건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지만 언약신학에서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된다. 그럼으로 언약신학에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구원의 신실성에 대한 간증으로, 성도가 끝까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좁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둘째로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IV. 총체적 의미로서의 기독교 영성 (Holistic Spirituality)

1. 총체적 영성이란?

Urban T. Holms는 기독교의 영성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독교 영성을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²⁶⁾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영성’을 떠올릴 때 왼쪽 하단의 ‘A 부분’을 생각한다. 이 A를 ‘내면 생활(The Inner Life)을 위

²⁶⁾ Urban T. Holms III,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81), 4. Urban Holms,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33을 참조하시오.

한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하나되는 체험을 추구하는데 중세의 수도원 전통을 따라서 직관적이고 신비적 체험의 영성이다. 이와 같은 영성 계발을 위해서는 침묵, 기도, 금식, 단순한 생활 양식 등이 추구된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특수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수도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수도사들은 영적 차원이 높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와 같은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절대적인 것에 대한 헌신·순종·고난을 강조한다. 성경을 덮어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며, 갑자기 어느 단어가 빛을 발해 마음에 닿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과 교체되어지는 행복한 느낌을 갖는다. 이들은 계시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며 거룩한 체험 추구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²⁷⁾

27) 이와 같이 거룩한 경험에 이르는 주체 에너지가 Eros인가 아니면 Agape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 먼저 Eros라고 하면 성적 개념이 먼저 오는데, 성적욕구(sexual desire)는 합일하고자 하는 본능적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소유욕이며 타락한 에너지의 속성이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하려는 욕구 속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의 소유욕이 있다. 종교에서도 영적인 성의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Eros는 외설적인 것보다 더 깊은 것으로 영적인 타락된 사람 속에서 하나님과 합일하는 에너지가 잠재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지식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잘못 나타난 것이 Eros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타락된 종교 에너지는 흔히 이단 속에서나 신비주의 종교 가운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Agape의 본질은 자기를 내어 주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신비적 합일을 통해 내가 포기되어 지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체 가운데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조심할 것은 '비운다'는 것의

오른쪽 하단의 'B부분'은 '개인 경건을 위한 영성(Personal Renewal)'이라 할 수 있다. 교리적 지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A와 비슷하다. 하나님과의 주관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보다는 계시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이 구별된다. 독일의 경건주의, 청교도, 그리고 대체로 복음주의 자들과 제자훈련을 하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J. Calvin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오직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했다. Calvin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순하게 하셔서 내가 듣도록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사변적이거나 이성으로 찾는 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예배, 사랑, 순종 안에서 알려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Calvin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경건이 그의 신학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다. 28)

주체가 내가 되면 내가 나를 비워보려고 하는 노력 역시 Eros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Eros를 Agape로 승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8) 현대인에게 있어서 경건은 종교적 감상주의나 거짓된 점잖음을 의미하는 외식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경건의 의미는 자신의 가정, 나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되어 질 만한 의무나 신실한 헌신을 의미한다. “경건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Calvin은 지적한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감과 연결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한 앎이 나오게 된다. 즉, 그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본 되심을 알아서 (우리의 죄 값은 저주되어야 마땅한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경건이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위의 참된 경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경건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발견

경건의 영성에서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 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가치성에 대해 말하시고 확신시키신다. 성경과 성령 사이에는 상호 뗄 수 없는 연결이 있는데 성경의 이해는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다.

오른쪽 상단의 'C부분'은 '지적 갱신(Theological Renewal)을 위한 영성'이라고 하여 신앙의 지적인 면을 강조한다. 대개는 이성이나 지성을 영성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아 지적인 것은 영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적인 부분도 영성 안에 들어가는데,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적인 바른 이해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중요시하므로 지적 연구도 중요시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지적인 면이 영성의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영성을 볼 수 있다. 사경회, 설교중심의 개신교 영성이 이 영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이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적으로 따지다보니 분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잘못된 것을

되어지는 대상이다. 경건을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던 지식은 무의미하다(딤후전 4:2, 1:19).

분별할 때는 말씀의 기준과 더불어 온유한 심령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나치게 지적인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왼쪽 상단의 'D부분'은 '사회적 개혁(Social Regeneration)을 위한 영성'이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 사회도 영성을 가지고 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처럼 개인적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영성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J. Calvin의 제네바개혁, D. Bonhoeffer의 사회참여 신학, M. L. King Jr.의 민권운동 등은 대표적인 사회변혁 영성의 모형이 된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단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구원의 영역이 교회 안에만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²⁹⁾ 구원의 영역은 모든 영역에 미친다.

영성에는 사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부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주관적인 결단을 따라서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성경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는 사회개혁의 영성을 말한다.

29)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교회는 임시적·도구적 개념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독특한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내 보여야만 한다.

2. 한국 교회 영성의 시대별 분석

복음이 전해진 초기부터 현대까지 한국교회의 영성을 총체적 영성에 비취 시대적으로 살펴 본 모습은 아래와 같다.

① 초기 (개신교 전래부터 한일 합방 이전):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당시 한국의 정치·경제는 불안정하였으며 이것을 보상할 도피처로서 종교에 대한 갈망이 컸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이들의 비참한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신비적인 면에서 천당과 지옥의 내세적 개념이 강조되었고, 복음전도 중에 여전도사, 매서인들이 무당과 많이 부딪치며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 일, 그리고 1907년 선교사들이 일으킨 부흥운동 등의 영성은 신비주의, 내면적 영성이 주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운 일 등 사회개혁의 영성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적인 면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육에 있어서 저들을 가르치는 수준이 평신도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제한하여 높은 신학 수준을 거부한 것을 볼 때 지적인 영성은 부족했다고 보아진다.

② 중기 (일제치하부터 6·25까지):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맞은 한국교회는 사회적 혼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특히 신비주의적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이 때 영성의 특징은 내세 지향적이며 감정적으로 신비주의 영성이 주를 이루었다. 감리교의 이용

도목사 등은 이 시대 신비주의적 부흥운동가의 대표자중 하나이다. 또한 황국주 등의 합일의 원리, 피가름 등 이 시대 영성의 특징은 내면적 신비주의 영성으로 많은 이단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학적으로 극단적 보수주의가 대두하였는데, 고려신학교의 박형룡, 박윤선 박사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김재준 목사 등의 합리주의 신학 개발이 활발하여 지적 영성도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경건의 영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③ 현대 (6·25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갈래의 영성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를 특징마다 나누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흥운동(Revival Movement):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전도 집회, 빌리 그레이엄, 피어슨 목사등의 대규모 전도집회 등 외국인들의 대중운동과 더불어 산 중심의 기도원 운동이 번졌다. 수많은 이단이 출현³⁰⁾되었으며 개인 갱신및 내면생활의 영성 등이 높이 나타났다. 그러나 바른 성경적 통찰력을 갖는 신앙이 아니므로 사회갱신이 아닌 물의를 빚고 도피적인 것이 되었다.

㉡ 변영신학: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등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네 차례의 대규모 집회 및 미국의 교회성장학이 소개되면서 대형교회가 생겼고 전체적으로 교회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내적 평화, 개인적 갱신(거듭남과 예배의 만족)등이 강조

30) ① 용문산의 나운몽: 진리는 질에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전통종교와 혼합화시킨 신비주의 운동 ② 신앙촌의 박대선: 기성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주장함 ③ 통일교의 문선명: 자신을 신격화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성역화를 추구하였다.

되었으나 신학적 갱신에 있어서의 지적 갱신이 부족하였고 특히 사회갱신의 영성이 부족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함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㉔ 민중신학과 사회개혁운동: '서구 신학의 이원론이 동양적인 일원론 토양의 한국에 토착화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면서 기독교의 기원을 동양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불안정의 상황에서 해방신학과의 접맥에서 민중신학이 나타났다. 내면생활이 강조되고 신앙을 신비스런 연합으로 보는 영성과 사회변혁의 영성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치 않고 혼합주의로 갔다는 점에서 경건의 영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㉕ 복음주의 운동: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영성으로 빠진다는 지적과 더불어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의 상황화를 꾀하는 영성 개발운동으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신학적 갱신, 개인적 갱신을 주장하며 Q.T.와 제자훈련 등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신비스런 연합을 강조하는 내면 생활 갱신의 영성은 다소 부족하였다.

V. 나가는 말

기독교 영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 말씀(절대적인 계시로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에서 출발한 것으로 총체적 영성

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면, H. Dooyeweerd의 지적처럼,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부침이 있는 영성 이해는 또 다른 시대 상황에 따라 늘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생명체가 된 인간의 영성이다. 이미 내 속에 주어진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빛과 소리를 발하도록 훈련함³¹⁾으로 성경적인 총체적인 영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 서적

- 류기종. 『기독교 영성』. 도서출판 열림, 1994.
- 신내리.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 손성은 역,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오성춘. 『영성과 목회』.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 Cobb, John. *Theology and Pastoral Care: Process Theology and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과정신학과 목회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 Holms, Urban T. *Spirituality for Ministry*. 김외식 역, 『목회와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1993.
- Keller, Timothy. 이은재 역, 『개혁주의 실천신학』. 도서출판 나침반사, 1993.
- MacDonald, Gordon.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31) 김경재, “성서에 나타난 영성훈련”, 『신앙세계』, 통권204호 1985년 7월호, 37.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1.

MacNutt, Francis S. *Healing*. 변진석외 역 『치유』.

도서출판 무실, 1992.

Thayer, Nelson S. *Spirituality and Pastoral Care*, 이윤복 역,
『영성과 현대목회』. 성광문화사, 1992.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